

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9. 08. 05. ~ 08. 25.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교는 Langara-49th Avenue Station과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학교 바로 앞쪽에 정류장도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공간에 팀홀튼이 있어서 간단히 도넛이나 커피등을 사먹을 수도 있고, 학교 내부에 스타벅스, 서브웨이도 있습니다.</p>
수업	<p>첫날 강당에 모여서 한국인, 일본인 모두가 듣기평가 시험을 봅니다. 그 후 반 배정이 되고 그 반 학생들과 3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수업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며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 있습니다.</p> <p>저희 반 수업은 항상 영어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를 짜주시고 아침마다 전날 뭐했는지, 전날 학교프로그램으로 어디를 다녀왔으면 그건 어땠는지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하도록 시키셨고 게임이나 듣기평가 등 여러 방식의 수업으로 영어에 익숙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루는 반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발표하고 마지막 날은 반마다 장기자랑 비슷하게 합니다.</p> <p>저희 반 선생님은 항상 밝으시고 영어로 대화할 때 문법이 맞지 않거나 발음이 틀렸을 경우 친절히 고쳐주셨습니다.</p> <p>과제의 경우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도 하루에 10분에서 2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카약킹, Discover Vancouver, 박물관견학, 아쿠아리움, 휘슬러 트립이 있습니다.</p> <p>휘슬러의 경우 아침 7시까지 학교에서 만나 출발 합니다.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는데 조금 춥기도 하니 후드집업 하나 챙기는게 좋습니다.</p> <p>그 외의 활동은 오전수업만하고 가거나 수업 없이 가기도 합니다. 카약 할 때는 선글라스 챙겨 가면 좋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사먹지 않는 이상 따로 개인적으로 드는 돈은 없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현지는 한국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그래도 햇볕에 있을 경우 덥습니다. 반팔을 가져가고 그 위에 걸칠 옷을 가져가고, 긴팔도 조금 가져가면 좋습니다. 반팔만 입고 있어도 그리 막 춥지는 않습니다. 비도 현지에 있을 때 두 번 정도 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현지에서 너무 늦은 저녁에만 돌아다니지 않으면 딱히 위험한건 없습니다.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무시하고 지나가면 말도 걸지 않습니다.</p>
숙소	<p>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의 경우 한국 학생들 모두 다른 가정으로 배정이 됩니다. 각자 개인의 방이 주어집니다. 어디 홈스테이의 걸리는지에 따라 학교까지 오는 교통편도 달라집니다. 1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10분정도 걸리는 집도 있습니다. 홈스테이마다 규칙이 다르기에 그것은 첫날 각 홈스테이에서 설명해주시거나 모르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딱히 저는 살면서 불편한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 외부식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은 홈스테이에서 주시고 점심은 홈스테이에서 도시락으로 싸주십니다. 저는 점심은 도시락을 먹거나 한국에서 가져온 컵밥 등을 먹었습니다. 저녁은 홈스테이에서 원래 주시지만 저는 매일 밖에서 사먹었습니다.</p>
교통	<p> 시내교통 관련</p> <p>교통 시스템은 잘 되어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버스나 스카이트레인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것에 드는 비용은 학교에서 Compass 카드를 주니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내는 동안 무제한으로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그러나 스카이트레인의 경우 Zone1,2,3이 있는데 대부분 Zone1 카드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Zone으로 넘어갈 경우 추가금을 내면 됩니다. 1500원정도 합니다. 그러나 6시 반 이후에는 Zone 상관없이 이용해도 추가금이 없습니다. 버스의 경우는 애초에 Zone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녁 9시 이후에 버스의 경우 배차간격이 30분정도 되니 잘 맞춰서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환전	634753원	700달러
카드	150000원	
합계	약 8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캐나다에 가게 되면 수업은 3시에 끝나고 주말은 학교에 가지 않으니 자유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자유 시간을 본인이 얼마나 알차게 보낼지 계획을 하면 좋습니다. 유심의 경우는 미리 사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맵이나 홈스테이와 문자 등 데이터를 쓸 상황들이 생기니 유심은 꼭 챙겨가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저는 이번 경험이 제 인생에서 절대 잊혀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캐나다에 가기 전에는 돈도 많이 들고 가서 제가 잘 적응 할 수 있을까 등 여러 고민들로 가지말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녀오고 나서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거면 저는 이 3주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에 가기 전부터 뛰어난 영어실력 성장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어를 말하는데 있어 두려움이 사라지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무조건적인 문법공부와 토익점수를 높이기 위한 영어 공부가 아닌 실제 영어권 나라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생활하다보니 가기전보다 확실히 영어에 대해서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걸로 저는 더 열심히 영어 공부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카약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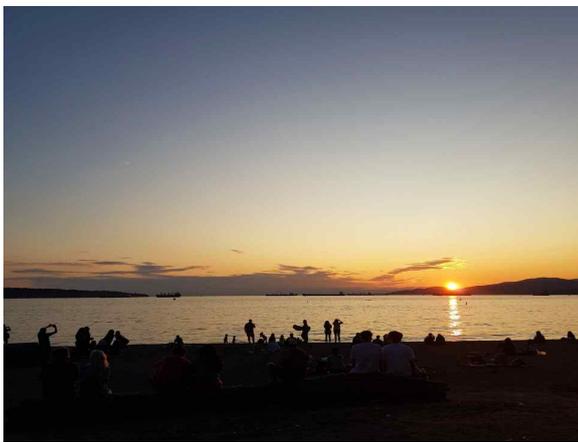
개스타운



리치몬드 나이트 마켓



Langara station



잉글리시 베이



휘슬러